

2026년 6월 관광 시장 동향

- 양국 몽골인 방한 단체 여행비자 신설 검토 -

'26.06.29(월) / 울란바토르지사

□ 법무부 몽골인 단체관광비자 도입검토

* 단체관광(C-3-2) 양국 정부 간 협력 추진 현황

- 한국과 몽골 양국 정부는 “연내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” 가속화 및 관광 유치 활성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추진 중(2026.5.26., 법무부)

□ 단체관광 양국 정부 간 협력 추진 현황

-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및 몽골 법·내무부 장관과 출입국·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. 양국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몽골인 단체관광비자 도입을 연내 추진하기로 함
- 양국 인적교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적 협력 및 “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연내에 단체비자(C-3-2)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
- 양국은 앞으로 출입국·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, 공동 현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

한국·몽골 양국간 출입국·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 논의 /2026.05.26./



출처: www.korea.kr

□ 단기방문 사증 방문목적별 분류

- 단기방문(C-3) 사증은 C-3-1부터 C-3-10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, 몽골 국적자는 C-3-9(일반관광) 사증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, 그동안

운영하지 않았던 C-3-2(단체관광)이 신설을 검토하는 것임

- C-3-9(일반관광) 사증은 입국 횟수에 따라 단수(Single), 복수(Double 또는 Multiple) 사증으로 구분되며, 발급 유형은 신청인의 방문 목적, 출입국 이력 및 재외공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

세부 약호	구분	대상
C-3-1	단기일반	단기방문(C-3) 활동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, 아래 순수관광(C-3-2)~ 동포방문(C-3-9)을 제외
C-3-2	단체관광 등 (몽골운영 검토)	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(여행사)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, 단체관광 등 관광,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
C-3-3	의료관광	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
C-3-4	단기상용	시장조사, 업무연락, 상담, 계약,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 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
C-3-5	협정상 단기상용	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※CEFA, FTA 등에 한함(인도·칠레)
C-3-6	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	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·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
C-3-7	도착관광	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
C-3-8	동포방문	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
C-3-9	일반관광	C-3-2(단체관광 등)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
C-3-10	순수환승	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

출처: www.hikorea.go.kr

□ 한국 단기방문 C-3 자격 입국자 현황

- 2026년 6월22일 한국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, 2026년 5월 기준 몽골인 입국자는 총 12,57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여성 7,664명(60.9%), 남성 4,910명(39.1%)으로 나타남. 이중 C-3 코드 입국자는 총 9,856명으로, 여성 6,031명(61.2%), 남성 3,825명(38.8%)으로 확인됨. 한편, 전년 동월인 2025년 5월 기준 총 방문자 수는 12,243명이었으며 이 중 C-3단기방문 입국자는 8,962명이었음. 이에 따라 2026년 5월 입국자는 전체 동월대비 전체 입국자는 331명(2.7%)증가하였고 C-3입국자는 전년 동월 대비 894명(10.0%)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

구 분	2025.5월	2026.5월	전년대비 증감 (증가%)
전체방한 몽골인(명)	12,243	12,574	331(2.7%)
C-3입국 몽골인(명)	8,962	9,856	894(10.0%)

출처: www.immigration.go.kr